

가계의 소득계층별 과외비 지출 추이

이 성 립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과 조교수)

가계의 과외비 지출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는 과외비지출에 대해 소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의 과도한 과외비 지출은 개별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외 수업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82-2001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 20년간 과외비지출 추이와 10분위 소득계층에 따라 과외비 지출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근로자 가계의 과외비 지출은 2001년 현재 월 평균 7,9402원으로 나타나 1982년에 비해 12배 이상,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후반부터 40대에 걸쳐서 과외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1992년까지는 45-49세 가구의 과외비 지출이 가장 높았지만 이후에는 40-44세 연령대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90년대 중반부터는 대체로 자녀가 중학교에 다니는 시기부터 과외비 지출이 커짐을 알 수 있다. 2001년 현재 40-44세 가구의 과외비 지출은 월평균 약 17만원으로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약 57%, 가구소득의 6.2%를 차지한다. 소득10분위별 과외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2001년 현재 최하위 1분위 월평균 과외비 지출은 26,736원, 5분위에서는 70,693원, 최상위 10분위에서는 151,190원으로 나타나 1분위 가계에 비하여 5분위는 약 2.6배, 10분위는 5.7배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상위 30%에서 지출한 과외비는 우리나라 전체 과외비 지출의 48.3%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30%가 지출한 과외비는 전체의 13.5%에 불과하다. 상위 30%가 지출한 과외비 비중이 1982년 65.4%, 1990년 53.3%이고 하위 30%의 지출 비중이 1982년 8.0%, 1990년 12.47%였던 것에 비하면 지난 20년간 소득계층별 과외비 지출 수준의 차이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득에 대한 과외비 지출 비율은 1990년까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내지만 이후부터는 중간계층의 과외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01년 현재 상위 30%에서 평균 3.05%, 하위30%에서 3.30%, 중간계층 3.48%).

지난 20년 동안 과외비지출을 상위 10분위 소득계층에서 7배 증가한데 비해 하위 1분위 소득계층은 19배, 2분위 계층은 28배나 증가시켰지만 이들 계층의 과외비 지출 수준은 고소득 가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저소득 가계 소득에서 과외비에 지출하는 비율은 고소득가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역진적인 지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교육이 차이 날 뿐 아니라 교육서비스가 사회의 공공재로 제공되어야 함을 전제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에 대해 높은 교육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